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요한 9,15.38)

〈소경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엘 그레코, 1567년, 유화

[제1독서] ..... 1사무 16,1-7.10-13나

[화답송] ..... 시편 23(22),1-3.3나-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 은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에페 5,8-14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 ..... 요한 9,1-41  
〈또는 9,1.6-9.13-17.34-3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25] 거룩한 주의 십자가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193] 지존하신 성체
- 파견성가: [281] 성 요셉

##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그때에 <sup>1</sup>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sup>6</sup> 예수님께서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sup>7</sup>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sup>8</sup>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sup>9</sup>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sup>13</sup>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sup>14</sup>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sup>15</sup>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sup>16</sup>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sup>17</sup>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sup>34</sup>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sup>35</sup>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sup>36</sup>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sup>37</sup>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sup>38</sup>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묵상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창세 2장 참조).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이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자신들의 논리에 갇히고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해 버립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눈을 뜬 사람과 그의 부모까지 몰아붙이지요. 부모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추방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얼버무려 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뜬 사람은 바리사이들의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상세하게 증언합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바리사이들로부터 회당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지고,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는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영적인 눈마저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리사이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빛의 아들로 처신했지만, 점점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반면, 눈을 뜬 사람은 더욱 빛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룰프 분체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행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 Q 하느님은 이 세상을 일주일만에 창조하셨을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전해 주는 이야기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하느님은 세상을 7일만에 창조하셨는데, 그 중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이 처음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아마도 수억만 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나 지어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를 밝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과학 책의 경우 사람들은 그 책에 적힌 내용이 증명된 것인지 묻는다. 그러나 성경의 경우에는 이렇게 묻는 것이 곤란하다. 여섯째 날에야 비로소 사람이 만들어졌다면, 그 누구도 천지 창조를 하느님 곁에서 지켜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표현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슨 뜻으로 7일 창조를 말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천지 창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 하고 묻고 헤아려 봐야 한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7일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하다. 성경에는 하느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하느님은 지금의 우리도 만드셨다.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이미 ‘좋다’고 말씀하신 셈이다.

모든 인간, 동물, 식물, 낱알 하나하나까지도 하느님께는 그토록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실(마태 10,30)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외롭고 슬플 때 “괜찮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너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라고 하느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7일 동안의 천지 창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이 세상은 차례대로 만들어졌으니 질서 정연하게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질서의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라는 것이다. 그 질서로는 밤과 낮, 계속 반복되는 주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다고 한다. 그때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한다(창세 1,27).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며, 우리 모두 각자 맡은 중대한 소임을 다해야 함을 암시한다. 한마디로 말해 인간은 세상 만물의 으뜸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모두 다 ‘ 좋게 ’ 태어난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고, 다른 피조물들(동식물, 무생물 등)과도 잘 지내야 한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껴 줘야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다른 창조 이야기가 동시에 나온다!**  
 하나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7일만에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그들에게 낙원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다. 이 두 이야기는 하느님과 사람의 특별한 관계를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 잘못된 기록은 아니다.

## 바오로회 소식

**바오로회 사순 피정과 부활절 피크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오로회 회원들과 새로 오신 20-30대 기혼자 여러분은 모두 오셔서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 피정**

4월 9일(일) 오후 12:45 - 4:30, 하상관

**부활절 피크닉**

· 일시: 4월 16일(일) 오전 11:30-오후 4:00  
 · 장소: Van Dyck Park  
 3720 Old Lee Hwy, Fairfax, VA 22030





뒷담화 많이들 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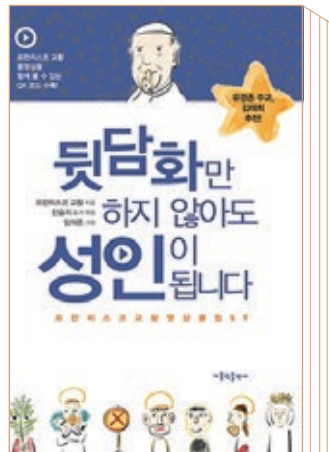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시지만 제가 신학생 때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혹여나 당신의 언행이 아들이 신부가 되는데 문제가 될까봐 늘 걱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지만 어떤 단체든 대표가 되는 것을 꺼려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뒷담화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어느새 신부님과 수녀님들에 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좋아하시지만 간혹 개인적으로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뒷담화를 하지만 누군가 맞장구를 쳐주고 동의를 얻게 되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신 것은 당신이 동의를 하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어느새 ‘그 신학생 어머니도 같이 뒷담화 했잖아.’라는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주님 신부님의 귀에 들어가서 아들이 신부가 못되거나,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늘 불안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뒷담화는 사람들 사는 세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뒷담화에 대해 “빨아먹는 캐리멜처럼 좋거나 재밌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뒷담화가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국에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 역시도 망치고 말지요!”라고 말씀하시며 뒷담화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더 나아가 **“만약 우리 모두가 뒷담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가서는 모두 성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제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여라.”(마태 22, 37-39 참조)는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는 한 신부님이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상들을 번역해서 엮은 책입니다. 처음 교황이 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언행들은 늘 이슈화되었습니다. 아마 남미에서의 사목생활을 통해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온 몸으로 함께하셨기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가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 역시 읽다보면 교황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고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교황님의 말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세례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기에



##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글  
진솔기 옮김  
임의준 그림

가톨릭출판사

복음대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 각기 다른 환경에 ‘맛’을 더해 줘야하고, 각자 처한 그 주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눠야만 합니다. 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빛이 나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빛입니다. 우리는 단지 삶을 통해 이 빛을 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빛을 꺼 버린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셈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 사랑을 전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덮쳐 오는 도전과 마주하지 않고, 도전을 피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도전을 마주하지 않고 그 도전을 피하며 사는 이가 있다면, 그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 그분은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시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삶을 발코니에서 관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도전들이 있는 그곳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 빈곤을 타파하려는 몸부림, 참된 가치들을 위한 고군분투, 매일 직면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투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마 교황님은 “내가 만약 ~라면 ...”과 같은 가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사순시기 삶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조금씩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CYO-News** WorkCamp Fundrasing Event

St. Paul Chung had a WorkCamp Fundrasing event, selling Bibimbop on March 19th, and it was a huge success! With large support from Fr. Paik and Fr. Seong the event became so big that 500 Bibimbop were sold in 4 hours. In addition to helping our CYO students get to camp, everyone at the church enjoyed the Bibimbop and said it was delicious! At the 2017, students will come together to serv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hile building strong, long-lasting relationships with their friends and God. We show gratitude to all the Church members, Choirs, Group Anna and Group Hasang for their strong support and contribution.

*Thanks to these generous donors :*

Dong - A Package USA, G - Land Printing, Group Quo Vadis and 2017 WorkCamp Participants' parents.



**LOGOS** 로고스 청년회, 사순 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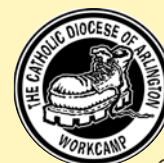


로고스 청년들은 지난 17일(금)부터 2박 3일간 Pine Creek Retreat Center(Gore, VA) 에서 열린 사순 피정에 참여했다. '성사'라는 주제로 열린 피정에서 참석자들은 세례, 고해, 성체, 혼인 성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로고스 회장단과 7명의 조장들이 준비한 피정은 성경퀴즈 골든벨로 시작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한 교황님 강론' 공부와 성원경 신부님 강론, 미사와 십자가의 길, 묵상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소사예사의 찬양에 맞추어 함께 노래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로고스 청년들은 "신자로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인 '성사'에 대해 깊이 공부하는 동안 보다 의미있는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며 은총의 사순 피정 동안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What is WorkCamp?**



Arlington Diocese Work-Camp is an intensive service learning and faith building opportunity for high school students.

Catholic Social Teaching is integrated with challenging home repair projects, music, and shared stories of faith. This summer, young people and supporting adul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erve residents who are disabled mentally, physically or financially.

It is an operation led by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Office of Youth Ministry. The majority of parishes in the Diocese participate with total youth numbers around 800, and 500 adults involved in various ways.



**ANNOUNCEMENT**

**First Communion Class Pilgrimage**

- When : April 2(Sun)
- Where : Francisca Monastery



**하상회 모임**

3월 월례회의가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4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매일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을 것을 당부하고, 3월에 생일을 맞은 박경훈, 박중환, 정준식 그리고 민명기 형제들을 함께 축하했다. 4월 정기모임은 부활절 다음 주인 4월 23일(일)에 가질 예정이며, 현재 효부, 효자상을 추천받고 있다.



**안나회 모임**

지난 19일(일) 친교실에서 열린 3월 월례회에 82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지난 주보 5면 기사에 실린 교황님의 말씀, “후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횡수만큼 성경을 찾아보라” 는 말씀을 강조하며 늘 성경과 가까이 할 것을 당부했다. 회원들은 3월 생일을 맞은 자매들을 축하하고 비빔밥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4월 월례회는 4월 23일(일)에 있을 예정이다.



하느님의 어머니



은총의 모후

**꾸리아 월례회의**

레지오 마리아의 꾸리아 월례회의가 지난 19일(일) 10시 미사 후 하상관에서 있었다. 하느님의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정우진 미카엘) 간부 32명, 은총의 모후 꾸리아 (단장 이경구 그레고리오)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묵주 기도와 회의록 낭독, 소속 뽀레시디움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2월 26일에 있었던 레지오 간부교육 견의사항 검토 및 3월 26일에 있을 아치에스 행사 등의 공지사항 전달이 있었다.



**베드로회 모임**

지난 19일(일)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열린 베드로회 정기모임에 64명의 회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나의 첫 하느님 체험”이라는 주제 안에서 회원들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첫영세를 받은 자매와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축하 케익을 나누는 등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레지오 마리아 가두선교**



주님의 종 마리아



기쁨의 어머니



겸손의 어머니



영광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봄을 맞아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가두선교가 한층 더 활발해 지고 있다. 5일(일) 영광의 어머니 뽀레시디움 단원 2명과 천주의 성모 뽀레시디움 단원 2명을 시작으로, 8일(수) 주님의 종 마리아 뽀레시디움 단원 2명, 12일(일) 기쁨의 어머니 뽀레시디움 단원 3명, 겸손의 어머니 뽀레시디움 단원 3명, 그리고 19일(일) 겸손의 어머니 뽀레시디움 단원 2명이 웨어팩스와 센터빌 H마트에서 선교했다. 레지오 마리아는 다른 신심 및 봉사단체에서 가두선교에 동참을 원하는 경우 적극 환영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사순 특강**

- 주제: 아버지 하느님과 나의 만남
- 강사: 이범주 바오로 신부
- 일시: 3월 28일(화) 오후 8시-10시 (7:30 미사 후)  
3월 29일(수) 특강 & 미사 / 오후 8시-10:30

**2 부활 합동 판공행사**

- 일시: 4월 5일(수) 오후 3-5시, 오후 7-9시
- 타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오셔서 합동 고해성사를 주십니다. 이 시간을 많이 이용하여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3 십자가의 길 기도**

- 사순시기 동안 매 주일 오전 9시 15분에 십자가의 길을 공동으로 봉헌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시고 은총의 사순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월 26일 파티마 / 4월 2일 성령기도회

**4 2017년 주교님 사목 보조(Bishop's Lenten Appeal) 약정**

- 알링톤 교구에서는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보조를 위한 기금을 약정받습니다. 2017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45,000입니다.
-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요한회 월례회**

- 일시: 3월 26일(일) 오전 11:30(B-3) • 대상: 50대 교우
- 문의: 배석범 알베르도 (703) 477-3491

**6 K of C 정기모임**

- 일시: 3월 26일(일) 오전 11:30 (B-1,2)
- 문의: 김 버나드 (703) 342-2194

**7 복사단 모임**

- 일시: 3월 26일(일) 오후 12:40(B-1,2)

**8 선교부원 모집**

- 선교부 봉사를 원하시는 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 신청: 매 주일 8시/10시 미사 후 선교 테이블(친교실)
- 문의: 유제운 (703)628-9314

**9 주일학교(CCD) 공개수업**

- 주일학교 공개수업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3월 26일(일) 오전 10시-11:15

**10 알링톤 교구 다민족 음악회 성가대원 모집**

- 알링톤 교구 다민족 음악회에 참가할 성가대 단원(30-40명)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다민족 음악회 일시: 5월 20일(토) 오후 7시
- 장소: Bishop Ireton High School
- 문의: 김문자 마리아 (703) 615-9910

**11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구약과 신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접수: 매주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지경수 요한 (571) 331-6047

**12 2017년 페루 부활파 단기선교 봉사자 모집**

- 선교 일정: 2017년 7월 7일(금) - 7월 14일(금)
- 신청 문의: 선교 테이블(친교실), 유제운 (703) 628-9314

**13 레지오 아치에스(봉헌강신식) 행사**

- 일시: 3월 26일(일) 오후 1시-4시 (장소: 본당)
- 대상: 레지오 행동 및 협조단원

**14 본당 춘계 대청소(단체부 주관)**

일시: 4월 2일 (일) 오전 10시 미사 후

▶단체명	담당 장소
요한회	본당 입구, 하상관 입구
베드로회	본당 내 전체(십자가 먼지 제거 필수)
파티마	친교실 A, 창문
성령기도회	친교실 B, 창문
바오로회	하상관 1층 지하실
성소후원회	하상관 체육관 정리정돈 및 의자 청소
푸르실로	사제관 마당
K of C	친교실과 방, 전체 바닥, 테이블 정리
레지오	주차장 전체
M.E	나눔터

**15 구역임원 교육**

- 일시: 4월 2일(일) 오전 11:30(B-1,2)

**16 청소년 사도임원 회의**

- 일시: 4월 2일(일) 오후 1시(B-3,4)

**17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4월 2일(일) 오후 1시 (B-1)

**18 제1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봉사부 / K of C 주관)**

- 일시: 4월 30일(일) 오후 1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특별 구역부 및 단체부 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 김버나드 (703) 342-2194

**19 부활제대 장식꽃 봉헌 신청**

- 부활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성당 현관 입구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K of C Car Raffle 판매**

- Car Raffle 티켓 판매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4월 29일까지)
- 자동차 5대, \$20,000 (현금) 상품이 있습니다.
-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을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ffle 1장당: \$5)
- 문의: 김버나드 (703) 342-2194

**21 2017년도 여름 하상한국학교 교사, 자원 봉사자 모집**

- 수업 기간: 2017년 6월 26일 - 2017년 8월 4일 (월-금 오전 9:30 - 오후 3:30)
- 모집 대상: 1. 한국어 /특별활동 교사(태권도, 체육, K-Pop, 무용, 사물놀이, 요가 등등)
- 2. 보조 및 자원 봉사자(봉사자에게는 대통령 봉사상 수여)
- 제출 서류: 교사 자원서 1부, 이력서 1부
- 마감일: 4월 8일(토) / 문의: 교감 (703) 598-5540

**22 묘지 구입 및 정리**

- 일시: 4월 1일(토) 오전 11:00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 문의: 홍익훈 요셉 (703) 966-8206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3월 26일(일)	사순 제4주일	십자가의 길(오전 9:15, 성당), K of C(오전 11:30, B-1,2), 푸르실로 봉사자교육(오후 1시, 하상관#10) 요한회(오전 11:30, B-3), 복사단(오후 12:40, B-1,2), 아치에스 행사(오후 1시, 본당)
27일(월)	사순 제4주간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28일(화)	사순 제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친교실),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친교실), 성령 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사순 특강(오후 8시)
29일(수)	사순 제4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사순 특강(오후 8시), 첫영성체 교리(오후 7:45, 하상관), 학생 견진반(오후 7:45, 하상관)
30일(목)	사순 제4주간	아침 미사(오전 6시, 성당)
31일(금)	사순 제4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친교실), 평일 미사(오후 7:30), 푸르실로, 금육
4월 1일(토)	사순 제4주간	아침 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하상 한국학교 시낭송(오전 9:00-12:30, 하상관), 파티마 사도직 쉼모임(오후 3시-6시)
2일(일)	사순 제5주일	구역 임원교육(오전 11:30, B-1,2), 청소년 사도회(오후 1시, B-3,4), 춘계 대청소(10시 미사 후)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푸르실로 주일 봉사자 교육(하상관 오후 1시, #5)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사순 제4주일: 창세 20-25, 마태 7

**\* 2차 헌금 \***

이번 주일에 KAPA(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에서 "해의 파견 한국 선교사"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성삼일 미사 안내 \***

- 성 목요일 주님만찬 미사**
  - 4월 13일(목) 오후 8시
- 성 금요일 주님 수난예식(4월 14일)**
  - 십자가의 길 - 오후 3시/오후 7시 30분
  - 주님수난예식: 오후 8시
- 성 토요일 부활성야 미사**
  - 4월 15일(토) 오후 8시 30분 (주차장이 모자라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니 Northrop Grumman(옛 IBM)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4월 16일)**
  - 성인미사 - 오전 8시, 10시(성당)
  - 학생미사 - 오전 10시(친교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3월 30일 (목) 오후 5:00-6:00
- 3월 31일 (금) 저녁 11:00-12:00
- 4월 2일 (일) 자정 12:00-1:00

- 가톨릭 뉴스
- 특강/ 그리스도교 서양문화의 어머니: 박승찬 교수,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리스도교
- 톤스에서 온 편지: 학교 가는 길
- 다함께 성가: 이슬라스티와 함께하는 성가배우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017년 3월 19일 (사순 제3주일)
- 주일헌금 ..... \$ 7,586.01
  - 교무금 ..... \$ 6,260.00
  - 교무금(신용카드) ..... \$ 4,550.00
  - 특별헌금 ..... \$ 0.00
  - 2차 헌금 ..... \$ 0.00
  - 합계 ..... \$ 18,396.01
-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리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재(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기다), 김경호(사도요한)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멜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성(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셀(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케어피플 &amp; 호스피스</b>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마태오 홍 종합보험</b> <b>메디케어</b>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중미반점</b>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Landscape</b>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Penta Olympic Fencing Club</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웨딩사진 전문</b> www.soowonlee.com 이 클라우디아 703-785-0900	<b>Folds &amp; Crafts</b> 종이접기, 한지공예 강사반, 취미반(성인, 어린이)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08:00 AM 10:00 AM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우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